

# 경력단절청년을 위한 AI기술 활용 교육과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질적 연구

## A Qualitative Study on AI-Based Education and Integrated Support Systems for Career-Interrupted Youth

정현주<sup>1</sup>, 김현진<sup>2</sup>, 김윤정<sup>3\*</sup>

Hyun Ju Chung<sup>1</sup>, Hyunjin Kim<sup>2</sup>, Yoon Jung Kim<sup>3\*</sup>

### 요약

본 연구는 경력단절청년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AI기술 교육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 청년들의 진로 회복을 지원할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청년 지원기관 전문가 및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경력단절청년은 취업 실패의 반복, 낮은 자기효능감, 사회적 고립,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 복합적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진로 재설계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로드맵 제공을 필요로 하였다. 둘째, 청년들은 AI기술이 필수 직무역량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AI 코딩, 그래픽 디자인, 클라우드 등 실무 중심의 AI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사를 나타내었다. 셋째, 청년들은 온라인 학습에 대하여 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이 존재한다는 장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즉각적 피드백 부족과 자기주도 부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블렌디드 방식, 실습, 포트폴리오 기반 교육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었다. 넷째, AI기반 학습을 위한 필수 지원요소로 학업 유지와 진로 지속을 위해 멘토링, AI 학습 튜터, 취업 연계, 경제적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청년의 실제 맥락에 기반한 AI기술 교육 및 지원체계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AI기반 역량 강화가 청년의 사회 재진입과 국가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 경력단절청년, 경력단절경험, 교육요구, 실무역량강화, AI기술교육, 진로지원, 질적 연구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llenges experienced by career-disrupted youth and their perceptions of AI technology education, and to propose educational strategies that support their career restoration.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with experts from youth

1 Department Youth Welfare, Seoul Cyber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e-mail: [hj8724@iscu.ac.kr](mailto:hj8724@iscu.ac.kr)

2 Department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e-mail: [hjinkim71@gmail.com](mailto:hjinkim71@gmail.com)

3 Department Liberal Studies, Seoul Cyber University, Seoul, Korea [Assistant Professor]  
e-mail: [bimay@iscu.ac.kr](mailto:bimay@iscu.ac.kr) (Corresponding author)

\* 이 논문은 원경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ceived(November 5, 2025), Review Result(1st: November 27, 2025), Accepted(December 12, 2025), Published(December 31, 2025)



© 2025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support organizations and young adults who had experienced career interruption. The analysis revealed several key findings. First, career-disrupted youth faced multifaceted difficulties such as repeated job-search failures, low self-efficacy, social isolation, and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and expressed the need for practical support and structured roadmaps for career redesign. Second, participants recognized AI technology as an essential job competency and demonstrated strong interest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ractice-oriented AI education such as AI coding, graphic design, and cloud fundamentals. Third, while participants acknowledged the flexibility of online learning in terms of time and location, they also noted limitations such as insufficient immediate feedback and the burden of self-directed learning, which led them to prefer blended formats, hands-on practice, and portfolio-based instruction. Fourth, essential support elements for AI-based learning included mentoring, AI learning tutors, employment linkage programs, and financial assistance to sustain academic engagement and career development.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insights for designing AI-enhanced educational and support systems grounded in the actual contexts of career-disrupted youth and suggests that strengthening AI-based competencies can facilitate their social reintegration and contribute to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Keyword : career-interrupted youth, career disruption experience, educational needs, practical skill enhancement, AI technology education, career support, qualitative research

## 1. 서론

오늘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은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서 산업 전반과 노동시장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AI는 반복 업무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지원, 창의적 콘텐츠 생성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1].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 기술 및 AI 관련 재교육이 필요하며,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데이터 활용 능력이 핵심 고용 역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UNESCO 또한 AI 활용 능력이 단순 기술 숙련을 넘어서 윤리적 판단과 사회적 책무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시민 역량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집단이 경력단절청년이다. 이들은 취업이나 사회진입 이후 다양한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장·단기적 공백을 경험한 청년으로, 구직활동이 멈추었거나 실무경험 축적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다 [3][4]. 청년층(15~29세)은 원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과도기에 있다 [5][6]. 우리나라 청년들은 고용 및 주거 불안, 가족형성 지연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7], 특히 경력단절청년은 노동시장과 사회적 관계망 모두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다. 통계청 [8]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전체 평균보다 낮고 실업률은 두 배 가까이 높아, 사회진입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과 개인적 좌절이 중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력단절청년은 비자발적 퇴사, 반복적 취업 실패, 군 복무 후 진로 준비 부족, 가사·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경력 공백을 겪는다 [9][4]. 이러한 경험은 낮은 자기효능감, 심리적 위축,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노동시장 재진입의 의지를 약화시킨다 [10]. 더 나아가 경력단절은 국가적으로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적자원 손실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11].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력단절청년에게 AI기술 교육은 경력 회복과 사회 재진입을 위한 핵심 통

로가 될 수 있다. 반면 기존 연구들은 청년층의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으나, 경력 단절청년의 구체적 어려움과 학습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12][13]. 이에 본 연구는 경력 단절청년과 이들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들의 특성과 교육 요구를 분석하고, 실무 중심의 AI기술 교육과정 개발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 단절청년의 실제적 맥락에 부합하는 교육 설계의 기초를 제공하고, 개인의 진로 회복과 국가적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이론적 배경

### 2.1 AI 교육의 정의 및 필요성

AI는 데이터 기반의 학습, 예측, 의사결정을 통해 인간의 사고를 확장하는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이후 사회 전반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모든 시민에게 요구되는 기본 소양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AI 리터러시(AI literacy)는 AI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 문제해결에 적용하며, 기술의 사회 및 윤리적 함의를 성찰하는 종합적 역량을 의미한다 [14]. 최숙영은 이를 AI 이해, 적용, 평가·생성, 윤리의 네 영역과 13개 세부 역량으로 정리하였다 [15]. 이러한 정의는 AI 리터러시가 단순 기술 숙련을 넘어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을 포함한 고차적 학습 능력임을 보여준다.

AI기술의 고도화는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대가 기술 적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 과제이다. 성은모 등은 AI 교육을 ‘AI에 관한 교육’, ‘AI 활용 교육’, ‘AI를 위한 교육’으로 구분하며 기술적 이해와 실천적 활용, 윤리적 성찰을 통합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6]. 세계경제포럼 또한 미래 핵심 역량으로 데이터 활용력,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을 제시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재교육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교육은 특정 전문가를 위한 선택적 교육이 아니라, 경력 단절청년과 같이 사회적 배제 위험이 큰 집단이 재도약의 기회를 얻고 사회와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적 기반으로 자리한다.

### 2.2 경력 단절청년의 특성과 유형

‘경력 단절청년’은 취업이나 사회진입 이후 다양한 사유로 노동시장 또는 직업훈련 체계에서 이탈한 청년층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경제활동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심리적 태도, 생활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구조적 현상이다. 주희진과 주효진은 청년실업자를 구직형, 기회추구형, 단절형, 포기형의 네 유형으로 제시하였고 [4], 이로미, 박가열, 정연순은 내성적 위축형, 프리

터형, 진로미숙형, 수험형으로 구분하였다 [9].

최근에는 니트(NEET) 청년과 은둔·고립 청년처럼 사회적 관계망에서도 단절된 집단이 경력단절 청년의 하위 범주로 포함되며 [9][10], 이들은 자기효능감 저하, 사회적 고립, 정체성 혼란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복귀의 장벽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경력단절청년이 한편으로는 고용 불안의 피해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재도약이 가능한 잠재적 인적자원이라는 ‘이중적 위치’를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OECD는 청년 고용 단절이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재교육과 기술 지원이 이루어질 때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투자 영역임을 강조하였다 [11].

### 2.3 청년 경력단절의 원인 및 영향

청년의 경력단절은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전공·직무 불일치, 직무 만족도 저하, 건강 악화, 실무역량 부족, 출산·육아, 군 복무 이후 진로 준비 미흡 등이 주요한 개인적 요인으로 나타난다 [17]. 여성 청년은 결혼·출산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탈이 많고, 남성 청년은 군 복무 이후의 진로 공백이나 사회적 적응 실패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잦다 [17].

구조적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비정규직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이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급속한 기술 변화는 기존 역량만으로는 노동시장에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단기성과 중심의 고용정책은 교육 기회 접근성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18]. 이러한 제약 속에서 청년들은 반복된 탈락 경험과 사회적 낙인을 겪으며 불안과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고 [19], 일부는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거나 은둔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교육은 경력단절청년에게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사회 재적응과 정체성 회복을 돕는 재사회화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 학습은 자신의 경험을 다시 해석하고 미래 방향을 재구성하는 전환학습을 촉진하며 [20], 이는 개인적 삶의 회복과 함께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력단절의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의 맥락 속에서 경력단절이 주는 영향,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나아가 이들의 취업과 사회로의 건강한 진입을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과 지원체계 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청년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의 전문가 2인, 경력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년 6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일반적 질적연구 (generic qualitative research)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은 인식론적이나 존재론적 전제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에 임하면서 전체적인 관점(holistic)에서 이들의 복잡

한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경력단절 경험의 의미들을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포착할 수 있기에 연구 참여자들이 겪게 되는 경험의 과정과 맥락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21][22].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2024년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화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1회당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 실시되었다. 다만 1명의 참여자의 상황상 화상면접이 어려워 전화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시 참여자들에게 연구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고지하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목적 외에 자료를 사용하지 않음과 참여자 신분을 가명처리함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원하지 않으면 연구에서 제외할 것이며, 녹음 파일은 연구가 끝난 후 폐기됨을 고지하였다. 이들의 구체적인 특징은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전문가 연구참여자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expert research participants

| 구분 | 연령 | 성별 | 담당 업무               |
|----|----|----|---------------------|
| I  | 30 | 남  | 청년사업 대외협력 및 연계사업 담당 |
| II | 45 | 여  | 경력단절청년사업 업무 총괄      |

[표 2] 청년 연구참여자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youth research participants

| 구분 | 연령 | 성별 | 소속       | 경력단절 경험                             |
|----|----|----|----------|-------------------------------------|
| A  | 35 | 여  | 원격대학 재학중 | 5년간 경력단절, 현재 취업중                    |
| B  | 29 | 남  | 원격대학 재학중 | 현재 8개월 정도 경력단절 중, 대학 재학 중           |
| C  | 27 | 남  | 원격대학 재학중 | 현재 3개월 정도 경력단절 중, 대학 재학 중           |
| D  | 34 | 남  | 원격대학 재학중 | 대학 재학하며 취업 준비 중(대학 입학 전 경력단절 경험 있음) |
| E  | 28 | 남  | 군복무 중    | 2년 후 전역 예정                          |
| F  | 26 | 여  | 군복무 중    | 2년 후 전역 예정                          |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 녹취록을 포괄분석, 의미단위분석, 패턴분석, 범주분석, 주제분석으로 구성되는 귀납적 주제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자료에서 패턴을 확인한 후,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핵심주제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23]. 한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심층면접시 지속적으로 연구참여자의 면접 내용을 재질문하여 명료화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진술의 맥락과 의미들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3인의 연구자들은 해석의 일관성 담보를 위해 연구 회의를 거듭하면서 질적자료를 분석하여 도출된 자료에 대해 연구자 간에 재검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각자가 의미단위를 명명화하고, 명명화에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중립적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4].

#### 4. 연구결과

먼저 전문가 연구참여자의 경우는 총 6개의 주제와 22개의 하위주제, 그리고 34개의 의미단위가, 청년 연구참여자의 경우는 4개의 주제와 36개의 하위주제 그리고 56개의 의미단위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청년 연구참여자들의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각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연구참여자의 연구결과를 이에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즉, 첫째, 경력단절 경험 후 진로를 개척해 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 둘째, AI기술 교육에 대한 의견, 셋째, 온라인 교육 방식에 대한 견해, 넷째, 학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 순서로 기술하면서,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분석결과를 뒷받침하여 서술하였다. 분석내용은 각각 [표 3], [표 4]에서 정리하였다.

[표 3] 전문가 연구참여자 심층면접 분석표

[Table 3]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 research participants

| 주제               | 하위주제            |
|------------------|-----------------|
| 경력단절청년이 경험하는 어려움 | 경력단절청년 정의       |
|                  | 취업 준비의 어려움      |
|                  | 직장적응의 어려움       |
|                  | 심리적 어려움 경험      |
|                  | 경제적 어려움         |
|                  | 사회적 관계 어려움      |
| 경력단절청년의 관심분야     | 취업을 위한 노하우      |
|                  | 취업을 위한 분야       |
| 경력단절청년 AI교육 선호도  | AI활용은 이미 대세     |
|                  | 취업가능한 교육 선호     |
| 온라인 학습에 대한 선호    | 개별 맞춤형 학습 형태 필요 |
|                  | 온라인 학습 선호 높음    |
|                  | 온·오프 병행 학습 필요   |
|                  | 탈락 방지 방안 필요     |
| 교육 운영방식          | 단기에서 장기로        |
|                  | 성취감 쌓는 과정 필요    |
|                  | 소규모 방식          |
|                  | 개별 밀착 케어        |
|                  |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
| 학업유지를 위한 지원 서비스  | 멘토링             |
|                  | 상담 프로그램 필요      |
|                  | 진로 지원 프로그램      |

[표 4] 청년 연구참여자 심층면접 분석표

[Table 4]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with youth research participants

| 주제                  | 하위주제                            |
|---------------------|---------------------------------|
| 진로 설정의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  | 구체적이지 않은 준비                     |
|                     | 직장, 가정, 학업 병행의 어려움              |
|                     | 내 선택이 맞는지에 대한 불안감               |
|                     | 실질적인 조언 필요                      |
|                     | 역량 향상 로드맵 제공 필요                 |
|                     | 개별 맞춤형 커리큘럼 고려                  |
|                     | 실무에 필요한 경험 제공                   |
|                     | 진로 설정을 위한 지원 서비스 필요             |
|                     | 경제적 지원 필요                       |
| AI기술 활용 교육에 대한 견해   | 참여의사를 강하게 표시                    |
|                     |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함     |
|                     | AI활용은 대세흐름                      |
|                     |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수강하기 원함          |
|                     | 요즘 트렌드에 맞는 AI교육을 원함             |
|                     | AI기술을 직무에 적용하기를 원함              |
|                     |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함 |
| 온라인 학습에 대한 의견       | 정보가 부족함                         |
|                     | 원하는 시간에 수강                      |
|                     | 새로운 분야를 학습                      |
|                     | 상호작용의 어려움                       |
|                     | 자기주도적 학습 필요                     |
|                     | 즉시 문제해결 어려움                     |
|                     | 집중력 저하                          |
|                     | 이상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                  |
|                     | 실습을 통해 결과물을 만드는 수업 선호           |
|                     |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                   |
|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  |                                 |
| 학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 | 지속적인 피드백 필요                     |
|                     | 자격증 취득 필요                       |
|                     | 학교와 사업체 연계한 프로그램                |
|                     | 참여자 모집 방안 필요                    |
|                     |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                     |
|                     | 진로 상담 필요                        |
|                     | 참여자간 자조모임                       |
|                     | 취업 컨설팅 서비스                      |
| 경제적 지원              |                                 |

#### 4.1 경력단절청년의 진로설정시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

청년들에게서 경력단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고 내부 하위집단도 이질적인 특성이 있지만,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직장퇴사 이후 이직이 어려워지면서 경력이 단절되고, 우울, 불안, 자신감 저하 등의 심리적 어려움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도 경험한다. 즉,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도 진로와 관련한 정보취득에서의 한계,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막연함과 함께 취업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구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였으며,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다. 이는 현직 선배들의 특강, 인턴 프로그램, 전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학업, 경제적 지원 등이다.

*전체적인 로드맵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내가 현직에서 좀 일을 하려면 이 정도의 스킬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레벨 2라면 한 레벨 한 7 정도가 있으면, 현직에 가서 일을 하려면 이 정도 스킬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좀 전반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A21)*

#### 4.2 경력단절청년들을 위한 AI기술 교육 내용 분석

경력단절청년들은 이미 AI활용이 대세이고, 현재 직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보면서 AI기술 활용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특히 코딩이나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그래픽 디자인, 클라우드 기초 등 AI기술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더하여 이 교육과정의 운영방식에서는 AI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를 개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유사한 관심사와 동기를 가진 청년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바라고 있었다.

*일단은 'AI 그래픽 디자인'은 꼭 들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중략)... 저는 AI를 통해서 좀 템플릿이나 명함이나 이런 디자인을 많이 만드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퀄리티보다 훨씬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한다면, 추가가 돼서 좀 더 독창적인 개념으로 좀 더 사람들에게 이목을 좀 끌 수 있는 디자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생각이 들고요.(D23)*

#### 4.3 온라인 학습에 대한 내용 분석

청년들은 온라인 학습에 대해 편리성과 자율성, 그리고 시간절약,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 커리어를 구축하기 쉬운 점은 장점이지만, 알아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야 한다는 점, 피드백을 즉

시 받을 수 없는 점, 집중력 저하 등을 단점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온·오프 블렌디드 교육, 실습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며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청년들이 본인이 뭘 원하는지, 선호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과목을 정해서 시작하면 이제 중도 탈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맛보기식의 체험형으로 좀 단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조금 흥미 유발하는 것들을 시작했다가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걸 찾아서 그걸 심화 과정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II-51)*

#### 4.4 학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

학업유지를 위한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학업유지를 위한 멘토링이나 상담 프로그램, 진로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청년들은 학습과정에서 일정 알람이나 어려움을 체크해 주는 지원체계, 즉각적인 문답이 가능한 AI학습 튜터, 일대일 학습튜터나 학습 멘토 등 지속적인 피드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격증 취득, 인턴십 프로그램처럼 취업과 연결되는 교육을 선호하였고, 상담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개인상담, 진로상담 등이 개별맞춤형으로 진행되기를 원했으며, 청년들간 자조모임, 취업 컨설팅 등 또한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수업을 들을 때 모르는 것이 있으면 AI한테 바로 물어볼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알아보고 싶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C30)*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력단절청년의 특성과 어려움, AI기술 활용 교육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필요한 지원체계를 규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경력단절청년의 어려움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 관계 단절, 불충분한 정보 접근, 준비 없는 전환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고, 심리적, 사회적 해결책이 통합된 경로 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외에 의하면, 경력단절 유형은 구직희망자형, 내성적 위축형, 꿈꾸는 프리터형, 진로미숙형, 수험형 등으로 다양하므로 [9], 유형별 특성과 삶의 맥락을 고려한 통합적 개입이 요구되고, 심리적 회복, 사회적 재진입, 진로 설계가 통합적으로 설계되는 생애주기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AI기술 기반 교육은 경력단절청년의 진로 재설계와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나타났다. 참여 청년들은 AI가 필수 직무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고 인식하며 코딩이나 그래픽 디자인 등 실무 중심 교육과 실제 산출물 개발을 선호하였다. AI 교육은 프로젝트 성과물 기반으로 구성하고, 초기 단계에서 동기부여, 정서적 지원, 기초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육 운영과 학업 유지를 위해서는 온라인 편의성만으로는 부족하며 블렌디드 방식과 밀착형 지원이 요구된다. 청년들은 온라인 학습의 한계로 상호작용 부족, 즉각적 피드백 부재, 자기 주도 부담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심화과정 개발, 소규모 집중케어, PBL 및 프로젝트 중심 수업, 포트폴리오 개발, 현장 연계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며, AI 학습 튜터, AI 커리어 코치 등으로 알림, 난이도 조정, 자동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업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경력단절청년의 진로 지속을 위해서는 지원 생태계 구성이 필수적이다. 청년들은 멘토링, 진로상담, 자격증 취득, 취업 컨설팅, 사업체 연계,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하여 복합적 삶의 불안정 속에서 진로 재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 지역사회, 고용 및 복지 영역이 연계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종합하면, AI기술을 활용한 진로 체계 구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통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AI기술은 경력단절청년의 진로 재설계와 역량 강화, 사회적 재결속을 매개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고, 진로교육은 심리적 회복, 사회적 재진입, 진로설계, 취업연결까지 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설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References

- [1] UNESCO, "AI and Education: Guidance for Policy-makers", UNESCO, Paris, France, December 2021.
- [2]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0", World Economic Forum, Geneva, Switzerland, October 2020.
- [3]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urvey Report on the Status of Socially Isolated and Reclusive Youth in Seou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Republic of Korea, December 2022.
- [4] H. J. Joo, H. J. Joo, "The Study o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Unemployed Youth in Korea: Focusing on Youth Panel Data", Korea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view, vol. 16, no. 2, June 2017, pp. 51-73.
- [5] K. S. Jun,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the Basic Act for Young People」 and the Direction of Policy for Young People",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 vol. 13, no. 1, April 2021, pp. 117-146, doi: 10.22809/nars.2021.13.1.005.
- [6] R. Bendit, "Youth sociology and comparative analysis in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Papers: Revista de sociologia, vol. 79, January 2006, pp. 49-76, doi: 10.5565/rev/papers/v79n0.800.
- [7] J. B. Lee, "Employment Insecurity and the Delay of Family Formation among Korean Youth", Korean Labor Social Institute Issue Paper, vol. 2021, no. 8, May 2021, pp. 1-21.
- [8] Statistics Korea, "Employment Trends in October 2024", Statistics Korea, Daejeon, Republic of Korea, November 2024.
- [9] R. Lee, G. Y. Park, Y. Jeo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NEETs in the Labor Market:

-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3, no. 1, March 2010, pp. 153-175.
- [10] M. Kang, Y. S. Lee, “Unemployed Youths' Process of Coping with an Adversity in a Youth Unemployment Support Program : With a Focus on the Grounded Theory”,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12, no. 3, September 2022, pp. 17-52, doi: 10.35273/jec.2022.12.3.002.
- [11]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ain Contents of the 2024 Budge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ejong, Republic of Korea, December 2024.
- [12] M. S. Kim, “The starting point for solving youth issues”, *The Youth Basic Act Forum* co-hos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Youth, National Assembly Member's Building, Seoul, Korea, November 11, 2017, pp. 34-50.
- [13] S. Kim, “A Qualitative Interpretive Meta-Synthesis of NEETs' Churning Experiences of Isolation and Connec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31, no. 4, December 2023, pp. 51-90, doi: 10.22924/jhss.31.4.202312.003.
- [14] D. Lee, S. W. Kim, Y. Lee, “The Analysis on Research Tren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literacy Education in Korea”,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Education Summer Conference*, August 12-13, 2021, Online, pp. 25-32.
- [15] S. Y. Choi, “A Study on the AI Literacy Framework”,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vol. 25, no. 5, September 2022, pp. 73-86, doi: 10.32431/kace.2022.25.5.007.
- [16] E. Seong, D. Kim, S. Shin, Y. Lee, “The Possibilities and Promises for Educational Practi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39, no. 4, December 2023, pp. 1479-1508, doi: 10.17232/KSET.39.4.1479.
- [17] H. C. Park, et al., “Research on Korean Occupational Index for Career and Employment Service”,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jong, Korea, Research Report. 16-1681, December 2023.
- [18] S. B. Lee, Y. Shin, M. S. Yoon, “The Effects of Relative Deprivation of Youth on Suicide: The Serial Mediation Effect of Prospects and Social Isolatio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42, no. 2, June 2022, pp. 369-389, doi: 10.15709/hswr.2022.42.2.369.
- [19] M. Kang, Y. S. Lee, H. C. Kwon,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y Types of Youth Unemployed”, *Locality and Globa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43, no. 3, December 2019, pp. 179-207, doi: 10.33071/ssricb.43.3.201912.179.
- [20] J. Mezirow, *Learning as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a Theory in Progress*, Jossey-Bass, 2000.
- [21] D. K. Padgett,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1998, T. G. Yoo translation, *Social Welfar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Nanam, 2005.
- [22] H. R. Jo, “A Study on the Empowerment Process and Context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4.
- [23] I. S. Kim, *Qualitative Methods and Analysis in Social Welfare*, Jipmoondang, 2016.
- [24] Y. S. Lincoln, and E. G. Guba,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1985.